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재취업 '손 멘다'

퇴직자·현직자 사건 관련 접촉 금지... 위반시 제재 재취업 이력 공개... 인사원칙 세워 '경력관리' 차단 공정위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 참여 금지

퇴직자들의 재취업을 조직적으로 도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공정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공정위가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다. 재취업한 퇴직자들의 이력을 10년간 공개하고 퇴직자와 현직자의 부적절한 접촉을 막으며 시장과의 유착을 막기 위해 유료 강의 등을 금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검찰이 퇴직 공무원들의 기업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 김학현 전 부위원장, 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지철호 현 부위원장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쇄신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자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세 가지 방향 아래 9개 방안을 담았다.

먼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를 위해 앞으로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명목 불문하고 모든 직·간접적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거나 기업에 재취업을 청탁하는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감시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 설치해 내부 직원 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검찰 수사에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 예정자의 내부 경력을 관리해준 정황이 나온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인사원칙도 세웠다. 4급 이상 직원들에 대해서는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발령을 금지하고 외부파견과 비사건부서 근무를 5년 연속으로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재취업자 관리 강화 측면에서는 퇴직자가 새로운 직장을 얻은 경우 관련 이력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한다. 퇴직자가 공직을 떠날 때 이력 공시 동의를 받고 만약 동의하지 않거나 이력을 통지하지 않으면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기업과 지문 계약을 맺는 등의 사실이 발견되면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나아가 특별승진 제도를 개선하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을 만드는 등 인사차와 협의해 추가적인 재취업 심사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공직윤리 강화를 위해 퇴직자와 현직자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공정위 로비스트법'을 강화시키는 셈인데 외부인 접촉 보고 범위를 확대한다. 내부 감찰 TF에는 외부 인사 영입을 검토 중이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현직자는 중징계, 퇴직자는 영원한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시장과의 유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 직원이 퇴직자나 기업,

로펌, 사건 관계자가 참여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참여가 즉각 금지되고 유사 교육 과정도 마찬가지다.

공정위 직원에 대가를 받고 기업과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대신 공정위는 공적 세미나 참여를 늘리고 무료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공정위를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쇄신 방안 외에 공정위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해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5억원 상향 시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은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현행 개인 10억원에서 15억원, 법인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각각 5억원씩 상향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일인당 보증한도 상향은 농림수산업자의 영농(어)규모 확대와 물가 상승 등에 따라 영농(어)비용이 함께 증가하는 현실을 적극 반영하여 조정됐다.

하식 농신보이사는 "금차 농신보의 동일인당 보증한도 상향에 농림수산업자의 농업 규모 확대·첨단화에 등에 필요한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 농어가 소득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은행 '아동수당 수령고객 더블 행운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지난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아동수당 수령고객 및 어린이고객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며 '아동수당 수령고객 더블 행운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첫째, 아동수당 수령고객 대상 이벤트는 올원뱅크 앱을 통하여 해당 이벤트에 응모, NH농협은행 계좌로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 중 303명을 추첨하여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으로는 다이슨청소기(1명:100만원 상당), 공기청정기(2명:70만원 상당), 육이지원금 5만원(300명)을 제공 9월분과 10월분 아동수당 모두를 NH농협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고객은 응모권을 2배로 산정하므로 당첨에 더욱 유리하다.

둘째, '어린이고객 이벤트'는 이벤트 기간 중 'NH착한어린이장장 + NH착한어린이적금'을 가입하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고객을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며 500명을 추첨, 농협은행 올원뱅크 캐릭터로 인기가 높은 '올리원이 인형' 1세트(2개)를 경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이벤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NH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나 올원뱅크 앱, 고객센터, 가까운 영업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하림, 올 연말 대미 삼계탕 수출 300만 달러 돌파

주)하림이 올 미국에 수출한 하림 삼계탕이 6월 기준 155만 달러 규모(252톤)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하림은 이 같은 추세라면 올 연말 300만 달러 수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림은 지난해 274만6000달러를 수출했다.

하림은 2014년 7월 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검역당국의 수출 허가를 받고 국내 축산물 최초로 삼계탕 대미 수출을 시작했다. 하림이 수출하는 삼계탕 제품은 삼계탕 본연의 맛을 유지하기 위해 생산 직후 급속 동결하여 장기간 보관할 수 있는 냉동 제품인 '즉석 삼계탕'과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레토르트 제품 '고향 삼계탕' 등 2종이다. '대미(對美) 축산물

수출 1호 제품'인 하림 삼계탕은 미국 시장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며 70% 가까운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지난 4년간 하림 삼계탕의 대미 누적 수출량은 930만 달러(1513톤)에 이른다.

하림은 삼계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와 연계한 판촉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하림 관계자는 "영계에 수삼, 대추, 찹쌀 등을 넣어 만든 하림 삼계탕은 한국의 대표 보양식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한인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계통의 소비자들과 히스패닉 계통 소비자들로부터 건강식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며 "현지 소비자들에게 삼계탕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알리는 시식 행사 등 판촉 활동



올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 JB Dream up 진로 코칭캠프 참가자 모집

도내 중학생 선착순 100명

(재)전북은행 장학문화재단은 도내 중학생 대상으로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 참가자를 31일까지 모집한다.

'JB Dream up 진로코칭캠프'는 중등 교육 핵심 추진 사항 중 하나인 자유학기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진로 고민을 시작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각자의 흥미와 적성을 알아 보고, 보다 구체적으로 진로에 대해 계획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캠프는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북은행 본점 19층 연수원에서 실시, '프레저 프로그램 리더십 스피치 진로 포트폴리오 및 IT 방송 예체능 경제 의료 법률' 등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줄 다양한 분야의 멘토 초청, 원하는 분야의 강의를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다.

참가 신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www.jbbank.co.kr)에서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 또는 메일로 송부해야

하며, 서류심사를 거쳐 9월 3일에 최종 100명을 선발한다.

(재)전북은행장학문화재단 김영구 이사장은 "청년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진로에 대해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며 "이번 캠프가 도내 청소년들에게 진로 목표 설정과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김세진 사회공헌부 대리, 박성훈 팀장 063 250 7496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전북개발공사여자육상선수단 김민지(멀리뛰기)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한다.

폭염속에서도 대회 위해 '구슬땀'

전북개발공사 소속 김민지 선수, 아시안게임 출전

'2018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 여자육상선수단 김민지(멀리뛰기)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출전한다고 20일 밝혔다.

2018년도 국내 여자 멀리뛰기 1위의 김민지는 26일 10시 30분(현지시간) 예선을 시작으로 메달 획득에 나선다.

김민지는 여자 멀리뛰기 종목에서 2018년 KBS배 전국육상대회 등 다수출전한 국내 대회에서 모두 1위를 기록했다.

전북개발공사는 2011년 여자육상선수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방공기업으로 지역 체육발전과 실업 스포츠 활성화에 기여하고 비인기 종목인 여자육상을 지원, 육성하기 위해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2018년 10월 12일부터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육대회에 전라북도 대표로 참가하는 전북개발공사 여자육상선수단은 계속되는 폭염속에서도 대회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영관리처 담당자 전현호(063-280-7472)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